

평화로 가는 길: 한국 전쟁 종식을 위한 평화협정 사례 보고서

요 약

수년간의 협상에도 불구하고, 미합중국(이하 ‘미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한’), 대한민국(이하 ‘남한’)은 위험한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이것은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 한반도의 안보 위기를 영구히 고착화하고 있으며, 수백만 명에게 실존적 위협을 안겨주고 있다.

이러한 위기는 언제든 깨질 수 있는 휴전으로 중단된 것이며 한반도에서의 긴장과 적대행위의 근본 원인인 한국 전쟁의 직접적인 결과물이다. 아직 끝나지 않은 한국 전쟁은 군사화를 가속하고 주요 정치적 경제적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북한을 압박으로 몰아붙여 비핵화 하려는 일방적인 시도는 계속 실패해 왔다. 코리아피스나우 캠페인(Korea Peace Now! Campaign)은 한반도의 안보 위기 해결을 위한 평화 우선 접근법(Peace First Approach)의 기여 방안을 위해, 평화협정의 정치적 · 법적 영향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작성했다.

저자들은 평화협정이 핵 분쟁, 인권 상황, 한미 동맹 등 미국의 최우선 과제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고 있다. 또한, 이 보고서는 한국 전쟁 종식을 위한 평화 프로세스에서 여성이 참여해야 하는 법적 근거 및 타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주요 결과

- 무장 교착상태를 해결하는 첫 번째 단계는 무력 사용 포기에 결의하는 것이다. 모두에게 유리한 이 기본 원칙이 핵심 안보 문제, 통제되지 않는 군사주의, 그리고 전쟁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초래하는 긴장을 완화시킬 것이다.
- 미국과 남북한이 참여하는 평화협정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전쟁종식을 가져올 것이며, 이는 전쟁의 무력 사용권이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흔히 제안되는 종전선언, 비침략협정, 정상화협정 등 다른 제도들은 전쟁 상태를 반드시 끝내는 것은 아니다.
- 평화협정은 핵전쟁의 위험을 줄이고 군축이나 무기 통제에 관한 회담을 용이하게 할 것이다. 전쟁 상태를 종식시키고 북미 관계의 정상화를 가능하게 하는 평화협정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부추기는 안보 위험을 억제함으로써 비핵화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참여 조건을 만들 수 있다. 평화협정은 북한을 ‘핵무기국가’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 끝나지 않은 한국 전쟁은 모든 당사자들의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는 국민의 복지 대신 군사주의를 위해 자원을 투입하고 있으며 안보라는 이름으로 시민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압박정책은 인권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국 전쟁 종식을 위한 평화협정이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인권 침해를 뒷받침하는 군사주의를 타파하고, 인권 문제에 더 효과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 것이다.
- 평화협정은 또한 남한과 미국의 국가안보를 강화하고, 시대 상황과 국가이익에 더 잘 맞게 한미 관계를 재정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평화협정은 명시되지 않는 한, 한미 동맹의 종식이나 미군 철수를 법적으로 내포하지 않는다. 평화협정은 정전의 종식과 ‘유엔군사령부’의 해체를 의미할 것이다.
- 전쟁과 군사주의는 여성에게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여성은 한국 전쟁 해결에 있어 특별한 이해관계를 지닌다. 여성은 오랜 기간 한반도 내 그리고 국제적으로 풀뿌리 행동을 조직해 왔으나, 공식적인 평화구축 이니셔티브에 참여한 여성은 거의 없다. 여성, 평화, 안보를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포함한 여러 국제법들은 평화과정에서의 여성참여를 의무로 명시하고 있다. 연구에 따르면 여성의 참여는 더 지속 가능한 평화에 기여한다.

본 보고서는 미국, 남한, 북한이 한국 전쟁을 종식하고 평화체제의 근간이 되는 공정하고 구속력 있는 평화협정을 체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